

광세십년

수정요정

음력보름

양심광세원
과

말코복음제일장

하나님의 아달 예수기리스토복음의 처음이라 선지이사야
써시되 보라 내가 너의 사자를 너의 암페브니여 너의 길에
비하교들게서 불은 난자의 소리 같오 뒤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 뒤로 정직케 호리라 함갓치 들게 밧팀레를 베풀고 회
의 밧팀레를 전하여 써죄를 사케 하난 요안니 오니 오은 유
쌍파 예루살임 사람이 다 나와 스사로 죄를 말하고 밧팀레
를 올단기 굴에서 밧다라 요안니 난약 뒤 털을 남고 가죽
허리에 묶고 먹는 거신 즉 누벌기 파 청밀이다라 전하여
뒤 뒤 예오는 자나를 이길지니 굽어 그 신들 밧를 들지
라도 나니 감당치 못할 거사나 너의 물에서 밧팀레 호되
오직 너의를 명령에서 밧팀레 호리라 하다라 마즈그
사오예

밧고곳을노말미암아올나가다가하날이열니고성령이비
 들기갓치그우에강림하를보니또하날노뫼터소리이사^후
 느는너의사랑하난아들이나나를깃거후는바라하다라^후
 성령이인도하여들게가^후셔사십일에시험을사탄으게보
 와들증심으로르터부리함게이사니사쟝섬기라요안^후니갓
 친후에예수가니너에와하나님의복음을전하여갈^후오샤되
 셜가차고턴국이갓가와스니회기후고복음을밋으라하^다
 라가니너히변에행하다가시몬파그동싱안드라^후그물을바
 다에터지물보니너는고기잡는사람이미라^후연수일오되나
 를좃추라니너의로사람을엇난쟝되게하리라^후하니너즉시
 그물을버리고좃다라^후거기로쥬금나가다가시비^후의아

들이 곧과 그 등성요한니를보니 비에서 그 물을 김거 날이여
 불우니 아밤시 비 뒤와 함괴하던 삭군을 비에서 작별하고 좃
 다라가 빌남에 나가 사밭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라치니 못
 사람이 그 가라치 물괴괴히 베기 문그 가라치 미 권병잇난자
 갓고 선비갓지 안이 미다라 회당에 터러운 귀신 품은 사람이
 이서 불너 갈오되 나 살잇 예수야 우리 너로터 부러어 드러기
 너와셔 우리를 망하나 노너가 너를 낸출아는 거시이 허나 남
 의 성자스 하니 예수척망하여 갈아샤 되 입닷고 나오라 하니
 터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지랄케 하며 큰 소리를 불우제기
 나 오니 못사람이 이상히 기루서로 틀어 갈아되 이엇지며 이
 엇터한 신도가 트 권세로써 터러운 귀신 새지 명히 미순쌍한
 다 하여 그 명성이 사방가니 니쌍에 허여지다라 회당에 나와

야곱과 요안나 그리고 부러시몬과 안드라의 집에 들어가니 사
 몬의 장모 연병하코 두워 주시 예수에게 고하니 예수나 아가
 그 손을 잡아 날이 치니 연병이 섰나 거날이 여일을 엿투다라
 저를 어히진서여 모든 병하며 귀신들은 자를 다리고 나와
 오온 고을이 문에 모이니 예수 각양 병난사를 만이 곳치며
 귀신을 간이 쫓고 귀신의 말하기를 허치안이 문 그 자귀를 알
 미라 아적에 예수닐어나가 들게가 거귀년 비난되시몬과
 합귀잇던 자 좃차 만니여 갈아되 못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
 니 갈아샤되 우리 말은 곳에 가자 난 음성 존계도를 전할거시
 니가 이를 위하야 웃다 하고 이경은 가니 그의 희망예 들어
 가도를 전하며 귀신을 쫓다라 비남 풍하는 자나 아와 살어 구
 하야 갈아되 주만 약즐기시면 능히 나를 간정케 하소서 하니

⁷²예수어엿비네겨손을펴만져갈오샤되⁷³니즐겨하니⁷⁴그간
 정흐⁷⁵라⁷⁶하⁷⁷미이⁷⁸여⁷⁹빅⁸⁰남⁸¹풍이⁸²떨⁸³니고⁸⁴간⁸⁵정⁸⁶하니⁸⁷예⁸⁸수⁸⁹엄⁹⁰이⁹¹겐⁹²게
 하⁹³고⁹⁴즉⁹⁵시⁹⁶보⁹⁷너⁹⁸여⁹⁹가¹⁰⁰게¹⁰¹하¹⁰²며¹⁰³갈¹⁰⁴아¹⁰⁵샤¹⁰⁶되¹⁰⁷삼¹⁰⁸가¹⁰⁹사¹¹⁰람¹¹¹으¹¹²게¹¹³말¹¹⁴호¹¹⁵자
 말¹¹⁶고¹¹⁷다¹¹⁸못¹¹⁹가¹²⁰스¹²¹사¹²²로¹²³제¹²⁴사¹²⁵으¹²⁶게¹²⁷보¹²⁸이¹²⁹고¹³⁰쓰¹³¹네¹³²의¹³³간¹³⁴정¹³⁵하¹³⁶물¹³⁷위¹³⁸하
 여¹³⁹모¹⁴⁰쇼¹⁴¹의¹⁴²차¹⁴³린¹⁴⁴바¹⁴⁵를¹⁴⁶들¹⁴⁷여¹⁴⁸써¹⁴⁹못¹⁵⁰사¹⁵¹람¹⁵²으¹⁵³게¹⁵⁴간¹⁵⁵증¹⁵⁶을¹⁵⁷삼¹⁵⁸우¹⁵⁹라¹⁶⁰호¹⁶¹되
 다¹⁶²못¹⁶³그¹⁶⁴사¹⁶⁵칼¹⁶⁶이¹⁶⁷나¹⁶⁸가¹⁶⁹비¹⁷⁰르¹⁷¹소¹⁷²안¹⁷³이¹⁷⁴던¹⁷⁵호¹⁷⁶크¹⁷⁷그¹⁷⁸일¹⁷⁹을¹⁸⁰헤¹⁸¹쳐¹⁸²예¹⁸³수¹⁸⁴로
 발¹⁸⁵겨¹⁸⁶성¹⁸⁷에¹⁸⁸들¹⁸⁹지¹⁹⁰못¹⁹¹하¹⁹²게¹⁹³하¹⁹⁴니¹⁹⁵밧¹⁹⁶그¹⁹⁷르¹⁹⁸들¹⁹⁹게²⁰⁰이²⁰¹시²⁰²되²⁰³사²⁰⁴람²⁰⁵이²⁰⁶사²⁰⁷방
 으²⁰⁸르²⁰⁹말²¹⁰미²¹¹암²¹²아²¹³나²¹⁴아²¹⁵오²¹⁶다²¹⁷라

말고복음데이장

수일을지니여예수다시가빌남에들거가니사람이그집에

아오니 배삼람으르며 인운지라 사삼람으르 인후의 시린금
갓가이 못하고 그잇난 바침영을 열이 현 후에 바람증하는 자
누은 상을 너려 보니 니에수 그미 드물 보고 바람증하는 자으
게일오샤 더 아히야 배죄샤 한다 하니 곳션히 수인 이거기 안
것다가 마암에 의론하되 이 사람이엇지 이갓치 말하나 노참
남하다 하나 님이 안이면 능히 죄를 샤하라 하니 이역 예수
마암에 그이갓치의 론하물 알고 일오샤 더 너의엇지 마암에
이를 의론하나 나바람증하난 자으 게 배죄샤 한다 일으난 것
파닐어 배삼람가지고 힘하라 일으난 거셰어 너기시실갓나
나다 못너의 일인자쌍에서 죄샤하난 권셰이 사물알게하리
라 하고 이여바람증하난 자으 게일오샤 더 너말하노니 님어

나 배상할 줄 알고 짐스르를 아가라 하니 터블어다 곳 상을 가
 지고 못사라지 알파서 나가니 다혼나 하나감을 영화하야갈
 아피우리조너이갓타들르지 못하엿다 하라 예수다 시히
 변에나 가니 못사람이나 아오거날이여 하라 치다라 행할세
 여알키유의아달이위세소에안저스물보고일오샤디나를
 좃추라하니이여르어 주다라 마즘그집연석개안즈미결어
 파죄인의이수와테차르듯을합기하문 좃난자만으미라바
 리시의그연키세관과죄인으르르쿠리합기방격으를보고
 그테자게일오더터세관과죄인으르르부러음식한다하니
 예수듯고일오샤키건장한자난의원을쓰지안이하고오직
 병하난자야하나니너가오기논올은사함을불우리안이오
 죄인을불러회기케하미라하다라 요안너의테자파바리시

인은지게 하난지라 나아와 갈아 되었요 안의 데 자라 바리신
 인은지게 하난디 그의 데 자라 치안히 하나냐 하니 예수
 일오샤 디신 낭과 함디 이 살서려 경하난 자 능히 지게 하랴
 오일어 신 낭과 함디 이 살적^은 능히 지게 치^은 하^고 오직 장
 너 신 낭 이 나 발 하야 지게 하나 나라 시드 영으르 현 옥 김 우기
 업나 나라 그리면 기^은 거시 안의 영 어부 하 거시 현 거스르부
 터 치 지 미 터 옥 심^은 고 소 시 술 노 처 허 피 디 에 네 으 미 언 나
 리 그리면 술 이 그 피^은 들 터 쳐 술 파 피 디 다 망 할 지 나 오직 시
 술 노 처 시 피 디 에 닛 나 나라 마 즘 사 밤 일 세 영 주 곡 석 밤 흘 지
 나 나 디 테 자 항 할 세 영 곡 석 이 삭 을 쟈 나 바 리 시 인 이 예 수 세
 일 오 되 보 라 터 사 밤 일 세 합 당 치 안 인 타 를 하 문 엇 지 노 하 나
 갈 아 사 도 의 다 빛 파 밋 죽 난 자 된 이 의 비 굼 들 세 영 한 타 를

오이지못하였나^고 내아^고 날^고 달^고 제사^고 장^고 되^고 여^고 슬^고 세^고 보^고 하^고 나^고 님^고 의^고 궁^고
 에^고 들^고 어^고 가^고 진^고 설^고 한^고 석^고 을^고 먹^고 어^고 스^고 니^고 꽃^고 제^고 사^고 안^고 이^고 고^고 는^고 합^고 당^고 치^고 인^고
 인^고 거^고 슬^고 또^고 한^고 노^고 나^고 모^고 든^고 조^고 난^고 잔^고 를^고 주^고 었^고 다^고 고^고 또^고 갈^고 아^고 사^고 되^고 사^고
 밧^고 일^고 을^고 사^고 람^고 을^고 위^고 하^고 여^고 베풀^고 거^고 시^고 오^고 부^고 칸^고 을^고 사^고 밧^고 일^고 을^고 위^고 한^고 거^고
 시^고 안^고 이^고 라^고 일^고 노^고 씨^고 인^고 자^고 드^고 또^고 한^고 사^고 밧^고 일^고 의^고 주^고 인^고 이^고 되^고 노^고 라^고 하^고 나^고
 라

칼의 복음에 삼장

예수^고 또^고 회^고 당^고 이^고 들^고 어^고 가^고 니^고 거^고 고^고 사^고 람^고 이^고 이^고 서^고 한^고 손^고 이^고 칼^고 은^고 지^고 라^고
 뜻^고 사^고 람^고 이^고 그^고 사^고 밧^고 일^고 에^고 꽃^고 치^고 콜^고 었^고 보^고 화^고 죄^고 즈^고 릭^고 하^고 니^고 예^고 수^고 손^고 말^고
 은^고 자^고 오^고 게^고 일^고 오^고 사^고 되^고 비^고 들^고 어^고 세^고 라^고 고^고 뜻^고 사^고 람^고 으^고 게^고 갈^고 이^고 키^고 사

노릇이듯시력을들으니 그그마암곳이 들은심하여 그시력
 으게말하사되손을괴락하명이여퍼치니그손이소복한
 지라바리시인이나가듯의당노르함¹엇지망하기를
 도모하다라 ²에수테자파함곡바다에가니열사³의가
 니니와유디와에루살일파이두디와올단밧과투르와시돈
 의부촌허다한사람이그행한바큰일을듯코나아와테자으
 게말하여저근비르기말이다니사람이만아용위하물면하
 른그사람곳치디만은크로질병잇는자다갓가이다들어간
 지고려한디크물어은귀신이노면그알과업터느늘그갈아
 되너는하나님의아들이라하니와수업이경계하여써해치
 지말나하다라산에올나그고져하난바를물고니그사람

된이나아오거날이 열두를 자기과함기하게하고보니여
 도를견하며손귀신쫓는권세를잇게하니피들이라일홈준
 시몬파시비디의아달야곱과야곱의동생요안지일홈을보
 안일기라하니곳우테의아골이라난뜻이라쇼안드디와비
 립과발도루미와마리와도와말미의아달야곱과닷디와
 카나니의시몬과밋이스카료유다니이곳에수를판쟈다라
 이거집에들어가니못사람이다시모여밥도먹지못하가스
 니그친속이듯고나가당기고저하여그민첫다일으니션비
 예루살임으르부터오난쟈과아되터빌시들을꿈어귀왕으
 로써귀신을쫓는다하니예수불너비사로써말하되사탄이
 엇지능히사탄을쫓추라만약나라이스사로다투면그나라
 이능히셔지못하고만약집이스사로다투면그집이능히셔

지못하고 만각 사탄이 늘어서 로닷투면 능히셔 지못하고
 멸하나니라 사람이 능히 날넌 자의 집이 들어가 그물건을 겁
 탈치못하되 반다시 만져 날넌 자를 얼면 후에 그 집을 겁탈
 하나니라 실노너의 씨일오나 나무론 죄과 무론 참남한말
 하느바그 사람은 면하되 오직 성령을 참남하느 자는 길리면
 치못하고 영원죄잇나니라 하온터덜의말이그덜어운귀신
 품엇다 하미다 라 예수의 어맘과 동성이 늘으러 밧게셔서 사
 람을 보니 여블으니 열어 사랑이 돌너 안저고 하여 갈아 되쥬
 의어맘과 동성이 밧게셔 찻나이다 하니 예수께 함하여 갈아
 샤되귀가니 의어맘이며 너의 동성이냐 하고 여돌너 안존
 자를 들아 보와 같아 샤되니 의어맘과 동성을 보라 두른하나
 님의 뜻을 힘하느 자 난니의 동성과 누이과어맘이라 하다라

막코복을테사장

예수다시히변에서가라치느디허다한사람이모여나아오
거날비에올나바다에서안고못사람은바다을것흐고두던
에셔시니이여열어쑈트로써비사를베푸터가라쳐일오되
들으라농군이나가총자를헤치니나해칠셔여마즘길것
뒤셔러진거손시가닐으리다먹고소들식시리트박한곳에
셔러진거손혹이김지못하물인후여그어음이속기발하되
히가나쓰기즉셀이업사물인하여말으고또가시가온뒤셔
러진거손가시가성하거짓늘브결실치못하게하고또조흔
쌍에셔러진거손자리고사키여결실이혹삼십곱혹십곱
혹십곱이되나니¹하교또갈아샤되귀이사면들으라하
다라예수호자이살셔²조준자파열누테자이비사혹물은

디여 수일오샤되 하나님의 나라비결은디의를주위알게하
 고 오직의인으게는다비사르써하운그눈으르써보고도발
 지못하며귀르써듯고도세맞지하의세후견된도리위씨
 면할가하미라하고또일오되니의비사를통르지못하니
 엇지모든비사를알야봉군은도를전하는사요길것뒤셔리
 진거손도를전한즉사람이드르인사탄이즉시불으릭그속
 에헤친바도룩앗는거시오또늘식시리예헤친거손사람이
 도트듯고꽃줄겨바드되오직안에별어업서겨우잡시하다
 가도를위하여환한과군박이불오매밋치는셀기세우는거
 시오가스가온디헤친거손사람이도를들오미아세샹념네
 파지전의디쪽과모든물옥이들어도를짓늘은즉결실치못
 하는거시오조호광에헤친거손사람이도를듯고바다결실

기혹삼신관속노십삼족일빅곱이되느거시라하고또일오
 샤되사캬이등셔를가져말알에과상알게두야화디누에늦
 치안으랴은밀한거시넷타나지안으며감촌거시나지안
 으미집나니귀이사면들으랴또일오샤되너의들은바를
 남가하카크의무삼플노써사람으게되면장차그말노써너
 의게티고또더주큰잇는샤는터주고업는쟈는그잇는바새
 시노한장차아스기샤또갈야샤되하나님나라이사람이종
 자를쌍게헤침갓탄거시밤낮고씨며종자가말하여자리
 피고클어한바를가지츠하쿤쌍기곡석을싱후되처음에업
 스고니버발슈하고후에이삭이성실하나니성실한즉낫출
 쓰른거들셔늘으미락또갈야샤되너엇지써하나님나라
 을비기며두삼비사르써나타니라한알겨자종자갓타나쌍

에 헤칠 썩여 난 비록 세 생 모 단 총 자 에 지 극 기 적 으 되 헤 친 즉
 심 장 하 여 모 단 치 소 보 담 그 고 또 큰 가 지 를 발 하 여 공 중 에 시
 가 그 그 들 에 깃 들 인 다 하 다 라 또 단 이 이 깃 탄 비 사 를 배 푸 러
 못 사 름 의 듯 는 바 능 간 을 의 지 하 여 도 를 말 하 되 다 못 비 사 안
 인 즉 말 하 지 안 이 하 고 종 용 할 썩 여 다 테 자 로 더 부 러 히 리 하
 다 라 이 날 저 물 기 여 예 수 테 자 게 일 오 샤 되 우리 더 편 두 던 에
 건 너 가 자 하 뒤 못 사 름 을 썩 나 천 파 갓 치 예 수 를 비 예 실 으 니
 또 한 물 은 비 이 서 할 기 하 는 더 큰 바 름 이 날 어 물 결 이 비 예 들
 어 거 의 차 되 예 수 비 셸 이 에 서 베 기 하 고 자 거 날 테 자 씨 와 같
 아 되 셴 성 님 우 리 망 하 물 힘 의 치 안 나 니 잇 가 하 니 예 수 씨 여
 바 름 을 칩 망 하 고 바 다 을 향 하 여 괄 아 샤 되 잠 잠 하 고 안 정 하
 라 하 니 바 름 이 이 여 멧 고 그 게 안 정 하 는 지 라 이 여 괄 아 샤 되

는 의었지 무서워하며 사.로 밋으미 업나냐 하니 못 사람이 심.
이 두려워셔로 말하되 이었던 사람이 노바름과 바다이 또한
순종한 그 하더라

말과 부음에 오장

바다터 견두던지라 신쌍에 놀으리 비에 너리는 더 곳터려운
귀신 품은 사람이 무덤으로 부터 나오다가 만니 너더는 무덤
에 거하난 더 곳쇠사슬이라 돈또한 능히 열의미 업사 문 열어
선고랑 파쇠사슬 기 열키이 워쇠사슬이 터지며 고랑이 부서
져 맛참 너억 제 할 힘이 업사 미라 밤낮늘 두덤과 산에서 부루
세기 고소 들고 셔스사 노상 은지라 멀니 예수를 보고 다라
와 절하고 큰 소리를 불너야 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달
예수 난지 령감이 너더부터 어늘어나니 잇가 너하나님을 부

막히니 평강이 구하노니 나를 말한게 말은 소서하문 예수일
 즉 말하되 너더러 온귀신은 그사름이게 나오라 하미라 하여
 물으샤 디베무산인함이냐 하니 같아되니 일음은 군이라 하
 문 우리 만으미라 이기간절이 예수게 구하되 조차 이싸에나
 가지안게 하라 다니거니 큰무리듯치이서 산에서 먹거날귀
 신이 구하되 광아되오리를 보되 여뎛트게 드리카게 하소서
 하니 예수 즉시 허허거날귀신이 나와 뎛트게 드리가니 그무
 리산편늘가기며 췌겨니려 바다에 더지니 이천가량이 바다
 광숨막인지라 뎛이 말아성파근방에 고하니 뎛사름이나
 와히는바를 모고져하여 예수에게 나아가 귀신 품엇던 사름
 꾀군으비 붓튼바 되엇던쟈 안저 옷을 남고던 연하늘 보고 무
 셔워하니 뎛간 귀신 품엇던쟈의 니려 빠뎛트 일노 써뎛사름

으게 고하니 뜻사람이 예수에게 구하여 고디경을 나가라 하
 다 라 마 여 올을 썬여 귀신 쫓앗던 자더 부러 함기하기를 구하
 되 예 수 허치 안이 하고 일오샤 되네 집에 들어가 너의 친척으
 게 나 아가 주네 게 영한 바일 파너 들어 업비 너 긴 자로써 고하
 라 하니 너가 서디 카포리에 서 예수 자기 게 영한 바 큰 일을 전
 하니 사람이 다 괴기 히 베키 다 라 예수 비를 타고 다시 터컨 두
 턴에 건너가니 허다한 사람이 모여 나아 온느니라 터히 변에
 잇는 회당 차지 하난 자 의 한 나일 홍은 이루라 와서 보고 그
 발알에 업제여 간절이 구하여 광아 되느니 일인 쌀이 거의 죽
 어 가니 주가 셔 손으로 썬안 찰하여 낮게 한즉 살나이다 하니
 예수 함기가 난지 허다 이 조차 옹위 하느니라 한나 부인의
 희중 열두히 열의 의원에게 숯탄고상하고 잇느니라 를 다 허

비하여 스되니 의하미 업고 병은 도리어 더한지라 예수를 뜻
고 못사람가 온디 석겨 그 뒤여 나가 그 옷슬민지 문발이 그
옷슬민진즉나을이라 하미라니 뒤희증근원이 즉시 벗고 몸
에 병나를 씨말았느니라 예수 능하미 자괴르나 오물알고 곳
몸을 못사랑가 온디들이 워갈아샤 되니 가니 옷슬린지 나냐
하니 데자갈아 되주 못사람이 옹위하늘 보고 뒤가 나를 믿지
나냐 하나 니 잇가 예수 두루보와 이를 행한 부인을 보고 저하
니 부인이 두려워하고 셤며 자기게 일은바를 알고 나아와 그
암페업테여 다 참으로써고 하니 예수 갈아샤 되녀 인아 너의
밋으미 너를 구완하노니 편안이 돌아가라 병이나 으리라 하
다라 말할새 여회당차지한자의 집으로 오는자갈아 되주 인
님의 살이 죽엇난디 엇지사로 선심을 피롭게 하나 니 잇가 하

니 예수일으난바말을듯고 회당차지한쟈으게일오샤되무
 셔위말나밋을다른이라하고피들파야곱파그등싱요안너
 외여는말은사람함기죽기를허치안코 회당차지한쟈의집
 에닐으러분요함과파우는것과이통하난쟈를보고들어가일
 오샤되엇지분요이우나냐아히죽으미업고잔다하니못사
 람이웃거날이여보너다가고아히부모파함기하는쟈를
 다리고아히잇는바곳에들어가그손을잡고일오샤되타리
 다쿠미과하니시긴죽너의야니너를말하나니닐어나라는
 뜻더라너의죽시닐어나도행하나니나혼별두혼이다라못
 사람이크게혼나니이모임의경게하여사람으로알게말나
 하고도명하모너의밤을주라하다라

열네과목이십네과장

예수거기셔나와본디에돌아오니테자좃다라사밧일에회
 당에셔가라치니뭇사람이듯고경동하여갈아되이사람이
 어뒤로갈미암아이를어드며타는바지혜가엇더하며이갓
 치능하물그손으로히하나냐이쥬우곳마리아의아들야곱
 파요시와유다와시몬의등성이안이냐그누히가어긔셔우
 리파합기안나냐하고이여새리세니예수일오샤되션지가
 본토와친척파집안외여는놈피지안으미업다하고거긔셔
 능하물히치안이하고오직손을두어병인으게안찰하여곳
 치고쓰터의밋지안이물기괴히베겨두로모단마을에단니
 머가라치다라쓰열두테자를볼너들식보너는뒤귀신썩난
 권세를주며명하되노용에지광이만가지고혹씩파혹자로
 피혈이에은을가지치달고오직신신고두벌옷슬넘지말나

하고도 갈아싸되어 닦이 단지집 드리가 거하여 갈적에
 들으되 너의 들이 접지안으며 너의 들 듯지안는 샹이 여든 거
 괴를 나갈 세여 너의 발에 몬주를 털어 써간 증을 삼으라 하니
 데자 나가 사름을 회기게 전하며 만이 귀신을 쫓추며 만이 기
 름으로써 병인으게 발기 곳치다라 헤롯왕이 들으문 그 일홈
 이나 타나미라 이여 갈아되 밥팀레를 베푸던 요안나가 죽으
 무르부터 난고로 등등을 행한다 하니 혹이 갈아되 이니야라
 혹션지라 혹션지의 한나갓다 하니 헤롯이 듣고 갈아되니 버
 인바 요안가 죽이 무르 들었다 하다라 헤롯이 사름을 보니 보
 요안가를 잡아 옥에 가도려 그 동생 비남의 처제로 다를 취한
 연고로 요안가간 하여 갈아되 왕이 동생이 처를 취함 미합당
 이니야라

문혜^루롯이 요안^니를 공경^하며 그 사^람되^미 올^코도 성^인인^이 줄
 알아 돌아보^고듯기를 슈^테하^고도 깃^들으^미라 마^즈귀^회
 의 날^을 만^나니 곳^에 롯의^신일^이라 연^석을^비설^하고 모^단너
 부와 천^총파^밧가 너의^놈분^자를^잔체^하는^더혜^롯다^의살
 이^들어와^춤추^워혜^롯파^함귀^안준^작를^김부^비하^니왕^이너
 이^게일^오되^너하^고저^하는^바를^너게^구하^는바^는너^라절^반의
 고^위하^여잉^세하^여갈^아되^너니^게구^하는^바는^너라^절반^의
 라^도반^다시^너를^조리^라하^니너^의나^가고^어망^제일^오되^너
 무^어슬^구하^리오^하니^갈아^되밤^팀테^를베^푸는^요안^니의^말
 이^라하^거날^이여^쌀니^들어^가왕^을보^고구^하여^갈아^되하^고
 저^하는^거슨^밤팀^테를^베푸^는요^안니^의말^이로^써소^반에^담
 아^나를^주소^셔하^니왕^이심^이근^심하^나클^어나^밍세^파도^듯

一 게안존자를위하여즐거옵니치지못하시며즉시군사를보내
 一 여명하여그말이듣가져오라하니이여가옥개성버여소반
 一 에그말이듣담아녀이를주미녀이써어말으게들이거날그
 一 데자듯고와셔죽음을가져다무덤에장사하니카몸테가모
 一 여예수으게나아가다행한바와가라친바르써고하니예수
 一 일오샤되너의사사로이들게가잠시수이라하은너왕하는
 一 자만아밤먹을결을이업스미라이여비를타고사사큰이들
 一 게가논더못사람이그가물보고아는자만아모단고을노조
 一 차보힘으로거기달아가만져늘으리모엇다라예수나가허
 一 다한사람을보고어염비비기문양이목인업삼갓타미라열
 一 어가지로써가라치니색이무느즌지라테사나아와갈아되
 一 어피눈들긴데씨가느젖나이다형견딘못사람을헤쳐두루

1. 촌니에가자괴를위하^{三十二}여섯을사게하^{三十三}소서하^{三十四}니^{三十五}다^{三十六}말하^{三十七}시되
 2. 니의가공금하^{三十八}라^{三十九}프아^{四十}사^{四十一}되오^{四十二}리^{四十三}가^{四十四}온^{四十五}이^{四十六}십^{四十七}냥^{四十八}계^{四十九}치^{五十}석^{五十一}을^{五十二}사^{五十三}다
 3. 메^{五十四}길^{五十五}잇^{五十六}가^{五十七}갈^{五十八}아^{五十九}되^{六十}너^{六十一}의^{六十二}식^{六十三}넷^{六十四}기^{六十五}가^{六十六}잇^{六十七}기^{六十八}보^{六十九}다^{七十}하^{七十一}니^{七十二}알^{七十三}고^{七十四}갈^{七十五}아^{七十六}되
 4. 다^{七十七}사^{七十八}기^{七十九}요^{八十}고^{八十一}기^{八十二}두^{八十三}리^{八十四}니^{八十五}이^{八十六}드^{八十七}이^{八十八}여^{八十九}테^{九十}자^{九十一}들^{九十二}명^{九十三}하^{九十四}여^{九十五}못^{九十六}사^{九十七}름^{九十八}을^{九十九}꿀
 5. 우^{一百}에^{一百一}벌^{一百二}터^{一百三}안^{一百四}지^{一百五}우^{一百六}라^{一百七}하^{一百八}미^{一百九}안^{一百十}지^{一百十一}우^{一百十二}니^{一百十三}혹^{一百十四}알^{一百十五}뵈^{一百十六}혹^{一百十七}쉬^{一百十八}인^{一百十九}이^{一百二十}라^{一百二十一}
 6. 수^{一百二十二}석^{一百二十三}다^{一百二十四}사^{一百二十五}파^{一百二十六}고^{一百二十七}기^{一百二十八}두^{一百二十九}리^{一百三十}를^{一百三十一}가^{一百三十二}지^{一百三十三}고^{一百三十四}하^{一百三十五}날^{一百三十六}을^{一百三十七}우^{一百三十八}리^{一百三十九}러^{一百四十}촉^{一百四十一}슈^{一百四十二}하^{一百四十三}고^{一百四十四}석^{一百四十五}
 7. 을^{一百四十六}세^{一百四十七}여^{一百四十八}테^{一百四十九}자^{一百五十}게^{一百五十一}부^{一百五十二}터^{一百五十三}하^{一百五十四}여^{一百五十五}금^{一百五十六}못^{一百五十七}사^{一百五十八}름^{一百五十九}으^{一百六十}게^{一百六十一}늦^{一百六十二}고^{一百六十三}고^{一百六十四}기^{一百六十五}두^{一百六十六}리^{一百六十七}로^{一百六十八}써
 8. 모^{一百六十九}단^{一百七十}사^{一百七十一}름^{一百七十二}으^{一百七十三}게^{一百七十四}논^{一百七十五}으^{一百七十六}니^{一百七十七}다^{一百七十八}먹^{一百七十九}고^{一百八十}비^{一百八十一}부^{一百八十二}른^{一百八十三}지^{一百八十四}라^{一百八十五}쏘^{一百八十六}그^{一百八十七}남^{一百八十八}은^{一百八十九}부^{一百九十}슬^{一百九十一}어
 9. 기^{一百九十二}를^{一百九十三}거^{一百九十四}두^{一百九十五}어^{一百九十六}열^{一百九十七}두^{一百九十八}광^{一百九十九}지^{二百}에^{二百一}치^{二百二}와^{二百三}는^{二百四}디^{二百五}그^{二百六}석^{二百七}먹^{二百八}은^{二百九}차^{三百}는^{三百一}오^{三百二}천^{三百三}이^{三百四}다
 10. 라^{三百五}이^{三百六}여^{三百七}테^{三百八}자^{三百九}를^{四百}위^{四百一}겨^{四百二}비^{四百三}예^{四百四}올^{四百五}나^{四百六}만^{四百七}져^{四百八}터^{四百九}컨^{五百}두^{五百一}턴^{五百二}에^{五百三}건^{五百四}너^{五百五}빚^{五百六}시^{五百七}되
 11. 해^{五百八}가^{五百九}라^{六百}하^{六百一}고^{六百二}자^{六百三}괴^{六百四}는^{六百五}곳^{六百六}사^{六百七}름^{六百八}을^{六百九}헤^{七百}치^{七百一}다^{七百二}니^{七百三}못^{七百四}사^{七百五}름^{七百六}을^{七百七}작^{七百八}별^{七百九}후^{八百}에
 12. 산^{八百一}에^{八百二}가^{八百三}빌^{八百四}터^{八百五}하^{八百六}터^{八百七}라^{八百八}져^{八百九}물^{九百}기^{九百一}여^{九百二}비^{九百三}난^{九百四}바^{九百五}다^{九百六}에^{九百七}잇^{九百八}고^{九百九}자^{一千}괴^{一千一}함^{一千二}자^{一千三}못

데서 티비를 저어 말년호를 보니 바람이 거스는 연고라 밤이
 사경에 바다으르헝헝여지너가고져할갓타니 못사칼이그
 바다에헝헝물호고써피물이라하여물우문다보고울적하
 물인호미라세수달하여갈아샤되마암노아다너로다무셔
 워말나호고이여나가가비에올으니바람이즉시머는지라
 못사람이마암에흔나씩세던일을씨닷지못하문그마암이
 완피하리라건네여킛니사릿쌍에늘으리두던에미고비를
 셔나니사람이즉시알고사방에달아나상으르써병인늘머
 이고그잇는바를뜻고나아오다락무론예수들어가시는바
 족마을파혹성시파혹촌에서사람이병인을당니에두고다
 못그옷단안지기를구하니만지신쟈는다나으물엇다라

말코복음데칠쟈

바리시인파멧션비예루살임으로부터오느자모여나아와
그테자수인이더러온곳식지안은손으로씩먹으물보니되
기바리시인파유딤웃사람은양노의뉴션하물직기여손을
정²이식지안코논먹지간이하고또당니로부터들아와식디
안코논먹지안이하고또열어웃들바다직기니잔파가미와
눅괴명늘식츠니라고²로바리시인파션비콜으되엇지녀의
테자논장노의뉴션하물항치안코더러운손으로써씩을먹
나노하니 예수²디답하샤되션한지라이사야밀이녀의거
쫓션하²는²갓를갈아치미괴괴룩한타갓치이뵈성이입슈로
써나를눔피나그가암인즉니게머다노직사랑의명하무로
써가라치²는도를삼으니이공연이녀게절하는지라하여스
니나의²하²나²김²에²경²게²를²써²나²고²사²람²에²뉴²션²하²를²직²킨²다

하고 또 갈아샤되실노 너의가 하나님의 경계를 버리고 너의
 뉴전하를 직기니 모쇼 갈아되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갈아되 부모를 공노하는 자는 반다시 속게 한다 하되 오직 너
 의 눈 갈아되 만약 사람이 부모에게 일오되 너에게로부터 너의
 할거슬 셴반을 삼앗나 하니 신즉 레물이라 는 뜻이라 후에
 너의 그 부모 봉양을 허치간이 하니 너의 붓친바 뉴전으로
 써 하나님 도를 폐하고 또 만이 이갓타물 행하나 나라이
 못사락을 볼너일오샤되 너의 다락을 듯고 씨다라 하라 밧그
 큰 말 무암아 들어가는 거시 능히 사람 흘터러이지 못하되 오
 직안으루 말 무암아 나오는 거시 사람을 너터이나 나라 하다
 라 예수 못사람을 써나 집에 들어가 밧테자 이비사로 써들은
 디 갈아샤되 너의 노이갓치 씨 밧지 못하나 밧그로 말 무암아

사람을게들어가느거시능히사람을더러이지못하거는그
 마암에들지안코그비예들여측간에설어지나니그먹는배
 정하를명빅지못하나노셔아샤된사람의속으로말무암
 아나오느거시사람을더러이거는안으르말누암아샤라
 마암으로나난악한싱각이외입파누적질파살_우파음느파
 탐남파악행파쇠우리질파샤치항파질투파참남파피만파
 자공이니모단악이다안으로나사랑을너러우나니라하
 다라이여닐어거괴로투루와시돈의경년에가한집에들어
 가즐겨사람으로알지못하게하나클어나감초지못하다라
 한녀인이얼시살이더러운귀신을품엇느니라소문을듯고
 와그발알에업더여귀신을살으게쫓기를구하니이녀인은
 힐리시사람이데수로보니지빅성이라예수갈아샤되아히

덜을안저비부르게하고아히덜의씩을가져써리게터지미
올치못하니라터인이더답하여갈아되쥬아클어하니이다
기도상알거셔아히덜기씩부수러기름먹나이다하니이다
갈아샤피이한말을인하여디돌아가라귀신이비쌀으게나
왓다하거날집에돌아가녀의상에누으물보니귀신이나왓
논지라수투로에지경을와시돈을지닌여가니바다
에닐으니다가포리절반이라귀먹고반병어리된자를달이
고와그손을우에안찰하기를구하니예수말이고웃사람을
셔나유벽한곳에더리고손가락으로써그귀에질이밀고춤
바다그해를안지고하날을누려려탄식하여갈아샤되입과
다라하니신긴죽열니라뜻이라그귀가열니고혜가풀려
저말을받기하니이여경게하여사담으게고치말나하나를

어느덧 영계 하되 더욱 더 현하다라 소경 동하물이 괴지 못
하여 갈아되고 하느거시다 선한 거시 귀머당이로도 듯게 하며
병 어리운 말하게 한다 하다라

말고 목음테 팔장

당일에 열어사 칸이다 시함괴잇는 귀머를 거시 업스니 예수
테 자를 볼도 일오샤 되니 이웃 사람을 영비네 거신 거시 이
무나 들함괴 한지 사홀에 먹을 바업스니 만약 주을 여집에 들
아가게 하면 길에서 곤핍하리라 하니 온작가 흑먼 곳개도 이
사미니 각테 자디 답하되 어되니 갈누암아 석을 어더 써들게
셔 비부루게 하리요 하니 문으샤 되니 의게 석멧기나 잇느냐
갈아되닐 굶키니이다 이여 못사랑을 병하노쌍에 안치우고
석닐 굶키를 가져 축수하고 쟈니 테 자게 브쳐노으라 하되 못

사람암페노이니또누이키져근고기잇는지라또혹슈하고
명하여노으니못사캬이먹고비부른지라남은부수리기날
균함지를거두고먹은사는사천인위테헤치과이여테자
르더부러키여올나말마누다경년에블으니바리시인이나
와쿨이되하늘노부터징조를구하여써시험하니마암에심
이탄식하여갈아샤되이세디엇지징조를구하나노니실
노의끼일오니징조가이세디엇지안것다하고셔
나다시비여올나터견누턴가다크테자씩을닛고턴여씩
한기뿐이카예수경계하여갈아샤되삼가바리시인의누룩
파해롯의누룩을방비하하니테자서로의론하여갈아되
우리씩업스미라하거날예수알고갈아샤된너의엇지써씩
영스물서로의론하나너의오힐고명빅하고써닷지못하

나 너의 마암이 완피하냐 너의 눈이 이서 보지 못하며 귀가
 이서 듣지 못하고 소귀 특귀 못하냐 너의 갈색 다삭기를 오천
 인에게 세고 부수리기를 거드워 너의 멧광치에 치와트냐 갈
 아 되 열 두 흘이니 다 소색 불굽기로 사천 인에게 세고 부수
 리기를 거드워 멧함지에 치와트냐 갈 아 되 불굽이니 다 갈
 아 사 보글 언즉 너의 엇지 새 맛지 못하냐 하 다라 비신다에
 들으니 소경을 다리고 와그 만지물 구하니 예수 소경의 손을
 잡고 다리고 촛밭게 나가 그 눈에 흙 밧고 손으로써 안찰하고
 보이논 바잇나냐 둘이니 ^{二十四} 눈을 거러 보고 갈 아 되 너 사 략을 보
 니 남우 갓치 행하나 이다 히미다 ^{二十五} 시 손을 그 눈에 안찰하고 자
 세이 부라 하니 소목 하 여 발키 모 단 불 견을 보니 ^{二十六} 지라 보니 여
 집이 르들 아 가 라 하 며 갈 아 사 보 촛 에 들 지 말 나 하 다 라 예 수 ^{二十七}

데 자로터 부리키사랴와 비리비모단 혼게 나가다가 길에서
 데 자게 들어 갈아샤되 사람이 나르니라 말하다 나하니 대답
 하오갈아되 밤 틈레를 베꾸던 요안니라 하며 후이니 아라하
 며 후션지의 하나이라 하다 이다 二十九 소물 오샤되 오직 너의 눈나
 를 뒤라 하나 나피들이 되담 하여 갈아되 주는 키리스토니 이
 다 하니 이여 경계 하여 사람으게 고치 말나 하다 라 비르소가
 라 처인자 만이 고상 하여 장노와 제사장 파션비의 버린바 되
 여 쥐기물 보와다가 삼일 후에 다시 볼갓다 하다 카여 수발키
 이를 말하니 피들이 밧자 하여 비르소 간하거 날이 여 三十一 데 자를
 돌아보고 피들을 칭망 하여 갈아샤되 사탄 아니 뒤르볼더가
 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교 사람의 일한다 하다 라
 이여 못사람과 데 자를 볼더 갈아샤되 나를 좃고져는 자면

만져오리라 하다가 이다하니 ^ㄴ아샤 되이니 아가 자연만져와
 모단일 ^ㄴ회복케 하리라 하시고 성경의 말이 인자가 만이 고상
 하여 업수이 네 기는 바 되리니 ^ㄴ문엇지냐 ^ㄴ실노 너의게 일
 으나 니이니 아가 이 무외스미 사랑이 소임의로 되 접하여 스
 니 곳 성경에 기록한 바 갓타니라 하시고 ^ㄴ자으게 놀으리 허다
 한 사랑이 둘우 고도 선비가 판론 ^ㄴ물보니 ^ㄴ못사람이 예수를
 보고 황송 ^ㄴ여압페나 아라 문안한 뒤 ^ㄴ여수물으 되 너의 판론
 하신 거슨 무어시냐 하니 ^ㄴ못사람중에 한나 이디 답하되 선성
 님이 가 병어리 귀신 붓튼 아말을 말이 고 선성 님으 게 나 아 오
 기는 ^ㄴ터어 ^ㄴ곳이던지 잡우면 죽시브 머지 게 하 여 춤을 즐니
 며 니를 갈고 말으 기는 선성 님의 테 자 게 쫓기 를 구 하 되 터 능
 치 못 하 터 이 다 하니 ^ㄴ답하 여 갈 아샤 디 밋으 미 업는 세 디 야

너 너의를 합귀하는지 가엿세며 너 너의를 참는지 가엿세냐
 다리고 너게 나아오라 하미터 다리고 나아오니 보고 귀신이
 즉시 지랄재하여 쌍에 업들우지니 구을며 춤을 흥니 거날그
 가 밤게 물으되 터이 병하는지 가엿세냐 같아 되 열여섯부터
 열어 번 불파물에 터저 망하러 하오니 쥬만 약능하시면 어엿
 비네겨우리를 도으소서 하니 예수 같아 사되 만약능하면 밋
 논쟈으게 논능치 안으미 업나니라 아히이 비즉시 불너 같아
 되니 밋으나니 밋지 못하늘 도으소서 하니 예수 열어 사람이
 말아와 코이쿨로 고더러 유귀신을 쫓지저 같아 사되 귀먹고
 병어리 귀신아 너네게 명하나니 터로 말미암아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나 하미이여 불으고그비 지랄케 하고 나오나 아
 히 죽은 것갓탄지라 사람이 만이 죽엇다 일오되다 못 예수그

손을 잡아 붙으치니 이 보낼 여 나 는 지라 짐에 들어가 밧테자
 사사로이 물으되 우리 능히 샅지 못하니 니 잇가 갈아 샅되
 이런 유논 비는 것안 인즉나 오지안나 니라 하다 라 거 괴로 말
 의 암아가 니 들 지니 는 되 즐 거 사 른으 르 아 지 못하 게 하 고
 데가 게 가 라 쳐 갈 아 샅 피 인 자 가 사 람의 손에 붓치 워 쥘 길 지
 니 쥘 길 지 샅 일 후에 다 시 보 갖 다 하 되 데 자 이 갈 을 명 비 지 못
 하나 또 못 기 를 두 려 워 하 다 라 가 밧 날 에 붙 으 리 짐 에 서 데 자
 게 을 으 되 너 의 길 에 서 서 르 의 론 한 거 손 무 어 시 나 데 자 잠 잠
 하 문 길 에 서 누 가 그 나 의 론 하 미 라 이 여 안 저 열 두 데 자 를 불
 너 일 오 샅 되 슈 두 가 되 고 저 하 는 쟁 는 반 다 시 못 사 람 에 마 즈
 막 이 되 며 못 사 람 에 사 환 이 되 나 니 라 하 고 열 인 아 히 를 취 하
 요 고 가 운 터 두 고 또 안 고 데 자 게 일 오 샅 되 무 론 서 일 곱 을 취

하여 이런 일인 아히나를 더 겸하는 자는 나를 더 겸하미요
 나를 더 겸하는 자는 나를 더 겸하미안 이요 오직 나를 보낸 이
 를 더 겸하미라 하다 라 요 안니 갈아 되 셴 심 남 우리 한 나 이 주
 의 일 품으로 세 귀 신 뜻 들 보 고 금 하여 스 둔 그 우리 를 좃 지
 안 으 미 니 이 다 예 수 갈 아 샤 되 금 치 말 나 니 일 품 으 도 써 능 하
 물 힘 하 고 나 를 곳 공 론 하 는 자 업 나 니 라 무 론 우리 를 치 지 안
 는 자 는 우리 를 향 하 미 라 너 의 가 기 리 스토 게 붓 트 물 인 하여
 한 잔 물 노 써 너 의 들 마 시 게 하는 자 는 너 실 노 너 의 게 일 오 나
 니 더 장 차 그 상 주 물 힐 치 안 으 리 라 무 론 나 를 밋 는 열 인 아 히
 에 한 나 을 것 치 게 하는 자 는 찰 하 리 큰 망 들 노 써 목 에 미 고 바
 다 에 더 지 라 민 약 비 손 이 너 의 들 것 치 게 하 면 석 어 병 신 으 로
 영 성 에 들 지 니 두 손 으 로 지 옥 새 지 지 안 는 불 에 나 아 가 기 보

맘나으니라 만약 네 발이 너의를 것치게 하면 썩어 절독 발이
 두 영성에 들지니 두 발노지 옥에 터지기 보담나으며 만약 네
 눈이 너의를 것치게 하면 썩고 쳐한 눈으로 하나 님의 나귀에
 들지니 두 눈으로 지옥에 터지기 보담나으니라 거 귀는 벌기
 가 죽지 안코 불이 새지 지 안 눈곳이 라 무론 사람 온 반다 시 불
 노 써 절이나 나니 라 소곰은 조은 거 시나 다 못 소곰이 그 맛 슬 힐
 으면 엇지 써 새 게 흥 라 너의 속 에 소 글이 이 스니 서로 화 목 하
 라 하 다 라

말코복음 제 십 장

예수 거 귀를 써 나 올 단 밧 권 유 더 지 경 에 들 으 니 열 어 사 례 이
 다 시 모 여 나 아 오 거 날 전 파 갓 치 가 라 치 니 바 리 식 입 이 와 물
 으 되 사 례 이 쳐 를 너 치 미 합 당 호 노 하 여 시 험 하 니 뒤 답 호 여

광야사되모소가 너희게 명한 거시엇더 하나 갈아터 모소가
 각 남근세를 써주고 너희 치라 하였나이다. 에수 갈아사되 너희
 마암 완회호물인하여 명을 너희게 써시나다. 못 조화의 처
 음 제 하나 남 일 남 일 너를 지어 시나이를 인하 건 된 사 례 이 부
 모를 색 나셔 너고 처 파 년 년 호 열이 일 체 가 되 나 나 이 갓 타
 면 불이 되 지 안 코 일 체 라고 하나 남이 싹 한 바를 사람 이 논
 으 지 못 하나 니라 호 다 카 집 에 서 데 자 다 시 일 노 써 물 으 니 길
 아 사 되 고 처 버 리 고 들 니 취 호 는 자 는 음 너 를 힘 키 리 요 관
 약 처 가 고 지 아 비 를 버 리 고 처 처 시 집 가 는 자 면 또 한 음 너 을
 힘 호 리 니 라 호 구 라 영 증 열 신 아 히 를 나 리 고 영 수 이 게 와 고
 관 지 력 한 디 데 자 칩 망 호 니 영 수 호 노 호 서 광 아 사 되 아 히
 는 영 남 호 요 노 게 나 아 오 게 호 금 치 말 나 하 후 됨 의 나 라 이

이갓타나라의 실노히비일오시나니얼인아히갓치하나
 님의나라을밧지킨자르시러관나아가지코하나나라하
 고이리간기손을그우에더이고육슈하다라길에나가논리
 한사름이압페나아안솔어아저물으되션한지라부자어니
 무어슬호야써영식을얻들이요호니예수브야샤되엇지나
 를션타칭호나냐션한자논오직한분이니하나님이라너모
 단영계예살인들며음진날며도적질날며방영된간승느며
 쇠기지칼며너의부모를향경호라물알진니라호니늘아되
 부자야무론이거스너얼어서부터직기엇나이다예수들아
 보고사랑호여갈아샤되너오히려한나이이즐어겨시니가
 저잇는바를파라써가논한사름을주가장차보렷가히날에
 잇나니도파서나를조추라호니네이말을위호여낮치푸루

리수심하고가한사함이만으리라영수하니보고네자
 일오사되시온잇는사하나님의나라에들이가기갈녀운
 지라하니네사그말을이상히네기날에수다시되답하여
 갈아사되아히달아직몰이지는자하나님의나라에나가
 기하얼여운지라약다가바늘구녕에지기가가부자하나
 님의나라에들이가는것보담오히려쉽다하니네자심이경
 등하여갈아되글언주귀능히구완하리요이니예수들이보
 고갈아사되사름으게는능치못하되다뜻하나님으게는글
 어치안으문능치못한바업사미라하다라피들이갈아되우
 리일결을써나주를조찾기이다하니예수갈아사되니실노
 너희게일오시다나나파복음을위하여집파동싱파누이파
 부모파자식파편람을써나자니금세에빈빈를바들거시집

파동싱파누이파어맘파자식파년맘파도한군박하나너세
 계영싱하리나라글어나만져잇는쟈만이뒤가되고뒤에잇
 는쟈만이만져가게되니라하다카예루살임에가는디길
 게서예수만져항하니테자이상하고두려워죽거날이여다
 시엘두테자를다리고자과장차만날바일노써말하시되우
 리예루살임에간즉인자가붓치물제사장파션키으게보리
 니터취기무로써정하여외방사롬으게붓쳐능욕하며춤바
 드며척척질하며쥐길지니삼일후에다시닐갓다하다라시
 비더의아몰야곰파요안너나아와갈아되션싱님우리즐거
 무어슬구하던자우리게항하소서하니갈아샤되나다려무
 으슬너희게항코져하나냐갈아되쥬영화할세미우리하나
 은주의우편에안그하나은자편에안그소서예수갈아샤

능히 구하는바는 너희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시는 잔을
 능히 마시며 너희의 밭은 밭 틈을 능히 밟았나냐 하니 갈아 되
 능히 하였나이다 예수 갈아 샴 되니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
 며 너희의 밭은 밭 틈을 너희가 밟았도다 못 너희의 자우게 안 세는
 것이 주지 안코 오직 예비한 자를 위하니라 하니 열어 데 자
 뜻고즉 시야 곱파 요안 너를 노하니 예수 불너 갈아 샴 되니 희
 외방에 넘군 된 자가 주하고 더 신이 그 권세를 잡는 줄을 아 되
 오직 너희는 글 엮치 안은 거시 너희 중에 크미 되고 저 한 자
 난 장차 너희 사환이 되고 슈 두 되고 작 하는 자 난 장차 못 사람
 의 종이 된 문인자가 참와 셔 사름의 성기를 밟지 안코 써 사름
 을 성기 기 요 또 그 성명을 손 하여 못 사름을 위 하여 속 하 마 라
 하 다 라 예 리 호 에 블 느 리 테 자 파 열 어 사 갈 이 로 함 괴 나 갈 되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말코복음의십일장

1 감람산에 오르니 예루살임과 벧과게와 빛아나가 갓가 온지

가 두 배 사 볼 보 니 미 산 하 되 니 희 악 훈 기 가 데 희 들 어 가 자 거
 근 나 구 민 거 술 만 나 리 니 흥 거 타 분 사 람 이 업 스 니 라 풀 어 잇
 클 고 올 테 만 약 사 람 이 너 희 잇 지 하 여 이 흥 하 나 나 물 으 면 갈
 아 피 주 의 술 거 시 라 하 자 터 즉 시 쿠 너 리 라 이 여 가 파 연 저 근
 나 구 를 만 나 니 문 밖 관 길 에 미 었 난 지 라 이 여 풀 으 니 것 터 섰
 든 자 갈 아 노 나 구 를 풀 어 두 었 할 나 나 노 하 거 날 테 자 예 수 의
 명 한 바 갓 치 말 하 니 허 하 난 지 라 이 여 저 근 나 구 를 잇 클 고 예
 수 으 제 나 아 와 자 괴 옷 슬 그 으 예 두 고 예 수 타 니 열 어 사 람 이
 옷 파 흑 나 무 가 지 를 밟 테 섰 버 어 길 에 꺾 고 도 압 폐 행 하 며 뒤
 예 죽 난 자 물 으 되 호 산 나 주 의 일 창 을 부 탁 하 여 온 샤 난 복 이
 요 님 한 우 리 조 상 구 빛 의 나 라 이 복 이 요 지 극 기 높 풀 곳 기 난
 호 산 나 라 하 다 라 예 수 예 루 실 임 정 된 열 들 어 가 모 단 물 면 을

들니 보고 저물기 여결 두데 작고 함의 빛아 나게 나가 다라이
 든날 빛아 나에나 갈적여키 관관지라 말니 석무 화파 남우님
 피이사물 보고 나가혹 그우에 두으슬어 들가 하여 나가간
 즉오직 남선이 요어들바업사문파 실세날으지 못하미라^한예
 수일드늘아샤되이 제쳐후드^는길나그이 들은말을 사람이 업
 스라하니 데사들잇난지라 예루살임에 놀으리 예수성년^에
 들어가 그중에 당사하난 자를 좃추며 든^은방구난 자의 탁자 파
 비들기 파난 시의 의자를 색구리 치며 또^다자분 거슬가지고 연
 안에 지니가물허치안코가라^한쳐갈아샤되글에니 집은모단
 뵈성을위하여 비난집이라 쓰지안앗나^나오직 너희가 써강
 도의 소혈을 삼나^나하니 선비파제사장이 이를듯고 엇지 써
 망할고도 모으나 무셔워^은문^은사람이 그가라 치물^은경동^은

미다라겨물지여미당성애라기아식기너연대를을씩여무
 화파나무를보니뿌리는북대달은지라외들이심각하고갈
 아되션성님안언하던마무화파남오를로소기말남마이다
 예수디답하여갈아샤되너희하도남을잇고너실노너
 희게일오시나니무론이산과말하여갈아보나니다다에너
 지라하되마암에의심치안코말한바일을을안장노주나
 니라고도너너희비말하나니무론말이구하노바어도들잇
 은즉엇나니라도셔서빌써연안약사관으리들나기이아면
 샤하여회아발하날에비신이가노한너희를을샤재하
 라하다라예수다시개루살임에블고리성면에형할씨여제
 사장파션비파장노나아와갈아노무순천세노식이를형
 하며누가이를형하노권세로써노공주니바하니예수갈아

야 되니 또 하니 희미한 말을 들을 거시니 희미가 나를 뒤잡한
 죽니 무순 권세로써 이를 힘하 돌리 희미 고 할나 안니 밤만
 레가 하느노 말미 엿나야 사 칼으르 칼리 치나야 나 손 뒤 잡하
 라 하니 사사 크이 의론하여 갈아 피만 약하 할노 말미 엿나 하
 면 더 갈아 되글어 번 깃지 밧지 안나야 하 고 만 약 사 크으르 말
 미 엿나 하면 빅성이 무서우 문나 요 주 너로 세 실노 션 지 불 삼
 우 미 크이 의론 말하 의 갈아 피야 지 하 노 라 하니 예 주 소
 야 사 되니 노 한 희미 무순 권세로써 이를 힘하 할고 치 안 깃
 다 하 노 라

말코복음 제십이장

예수 비사로써 모든 사 람의 말을 하 되니 희미가 이르니 원심 부 고 하
 추로써 들으고 습득을 언 거 리를 하 노 토 들을 어 위 동인 오게 세

주그말은식· 갖다가괴악에잇치한¹것을²의녀³농인⁴에게
나아가포도원⁵의열을⁶늘거두고⁷쳐하니⁸다⁹못¹⁰농인¹¹이¹²잡아¹³터
공연이¹⁴들아¹⁵오¹⁶게¹⁷하¹⁸미¹⁹다²⁰시²¹말²²은²³총²⁴을²⁵보²⁶기²⁷니²⁸농²⁹인³⁰이³¹그³²말³³이
를³⁴상³⁵하³⁶고³⁷능³⁸욕³⁹하⁴⁰여⁴¹들⁴²터⁴³보⁴⁴기⁴⁵거⁴⁶날⁴⁷도⁴⁸한⁴⁹총⁵⁰을⁵¹보⁵²기⁵³니⁵⁴농⁵⁵인⁵⁶이
주⁵⁷기⁵⁸는⁵⁹지⁶⁰라⁶¹쇼⁶²말⁶³은⁶⁴총⁶⁵열⁶⁶이⁶⁷를⁶⁸보⁶⁹니⁷⁰죽⁷¹치⁷²며⁷³혹⁷⁴주⁷⁵기⁷⁶는⁷⁷지⁷⁸라
사⁷⁹로⁸⁰한⁸¹나⁸²이⁸³이⁸⁴사⁸⁵니⁸⁶사⁸⁷랑⁸⁸하⁸⁹는⁹⁰아⁹¹달⁹²이⁹³라⁹⁴마⁹⁵즈⁹⁶막⁹⁷에⁹⁸또⁹⁹한¹⁰⁰보¹⁰¹니
며¹⁰²일¹⁰³오¹⁰⁴되¹⁰⁵터¹⁰⁶기¹⁰⁷아¹⁰⁸말¹⁰⁹을¹¹⁰공¹¹¹경¹¹²하¹¹³리¹¹⁴라¹¹⁵하¹¹⁶다¹¹⁷니¹¹⁸다¹¹⁹못¹²⁰농¹²¹인¹²²이¹²³서¹²⁴로
말¹²⁵하¹²⁶되¹²⁷이¹²⁸는¹²⁹그¹³⁰장¹³¹손¹³²이¹³³니¹³⁴주¹³⁵기¹³⁶면¹³⁷산¹³⁸업¹³⁹이¹⁴⁰우¹⁴¹리¹⁴²히¹⁴³라¹⁴⁴하¹⁴⁵고¹⁴⁶이¹⁴⁷며
잡¹⁴⁸아¹⁴⁹주¹⁵⁰겨¹⁵¹동¹⁵²산¹⁵³밖¹⁵⁴게¹⁵⁵베¹⁵⁶리¹⁵⁷니¹⁵⁸원¹⁵⁹쥬¹⁶⁰장¹⁶¹차¹⁶²잇¹⁶³시¹⁶⁴하¹⁶⁵리¹⁶⁶보¹⁶⁷와¹⁶⁸셔¹⁶⁹이¹⁷⁰농
인¹⁷¹을¹⁷²망¹⁷³히¹⁷⁴고¹⁷⁵동¹⁷⁶산¹⁷⁷을¹⁷⁸말¹⁷⁹은¹⁸⁰사¹⁸¹람¹⁸²으¹⁸³게¹⁸⁴붓¹⁸⁵치¹⁸⁶리¹⁸⁷라¹⁸⁸비¹⁸⁹희¹⁹⁰이¹⁹¹괴¹⁹²록¹⁹³한
바¹⁹⁴장¹⁹⁵인¹⁹⁶이¹⁹⁷베¹⁹⁸린¹⁹⁹바²⁰⁰들²⁰¹노²⁰²집²⁰³모²⁰⁴통²⁰⁵이²⁰⁶요²⁰⁷긴²⁰⁸한²⁰⁹돌²¹⁰을²¹¹삼²¹²아²¹³스²¹⁴니²¹⁵이²¹⁶는²¹⁷

나냐 하니 그 사¹¹크델이 이 비사가 자기를 갈아 치는 풀알고 잡
 고져 하되 그 뜻사람을 무셔워 하여 세나가 다라바리¹¹시인
 파헤롯의 느리수인을 모니 그 말노쳐 그를 고져 하¹¹나 아
 와 갈아 되션 성님을 참된 이 요사함을 편 뒤 치안¹¹은 풀을 우리
 알문의 모로써 사¹¹크을 취치안고 참으¹¹로써 하나님의 도전하
 물인 하미 니이다 키살으게 세를 밧치미 합당 하니 잇가 우리
 는 밧치리 잇가 밧치리 안으리 잇가 하니 예수¹¹그 거 죽슬 알으
 시고 갈아 샅 되엇지 나를 시험 하나냐 온돈한 남을 가져다 나
 를 보이 리¹¹이 여가 저오니 갈아 샅 되이 화상과 괴호가 뒤냐 갈
 아 되 키살이 니이다¹¹여수 갈아 샅 되 키살의 흘건은 키살으게
 돌니고 하나님의 불건을 하나님께 돌니라 하니 그 사람이
 기고히네 기다라¹¹스 샷 두키인의 날이다 시니는 재업다 하여

나아와 물이 갈아 되 선성님모쇼가 클노써 우리게 보여스되
만약 사람이 죽으미쳐는 잇고 자식을 유치못하면 동생이 그
처를 취하여 자식을 나아 써준다 하고 형^유테닐 급이 잇는디 맛
자가 처를 취하여 자식을 유치못하고 죽으미 그들^유지가 취하
여 또한 자식을 유치못하고 죽고 그 세치가 쓰는 글이 하여 날
급 사람이 다 취하여 자식을 유치못하고 그 후에 터인이 쓰는
죽엇는디 다시 날 써여 벌으리 터위의 처가 되리 잇가 하문 날
급 사락이다 취하미가 예수 날 아샤 되니 회성경과 위하나님
의 능하물 아지 못하니 그 틀니 지안으라 죽으무로 다시 날 써
여는 장기도 안이 가고 시집도 안이 가고 하날에 잇는 사자파
갓타 나라 죽은자 다시 날 진던너 회모쇼의 클 형극 편개 하나
님이 이렇듯 날 하여 갈아샤 되나 난 알라 함의 하나님이 삭의

하 나 남 야 곱 의 하 나 님 이 라 물 오 이 지 뜻 하 겠 나 님 디 리 하 나
 님 은 죽 은 자 의 하 나 님 이 안 이 요 산 사 의 하 나 님 이 라 고 르 더
 희 가 심 이 틀 님 지 각 하 다 라 한 선 비 와 썩 고 변 론 하 물 들 고 예
 수 의 키 압 이 션 하 물 알 고 이 지 들 으 되 모 단 경 계 중 에 어 님 거
 시 옷 들 이 되 나 니 잇 가 예 수 디 랑 하 시 되 옷 들 은 이 할 일 아 들
 으 라 주 가 우 리 하 나 님 이 되 니 주 는 한 분 이 라 쓰 너 희 마 암 을
 다 하 면 션 생 을 다 하 며 뜻 을 다 하 며 희 희 하 나 님
 을 사 랑 하 라 한 거 시 요 그 들 직 는 근 체 사 랑 하 기 를 제 몸 갖 치
 호 라 호 여 스 니 경 계 가 이 두 가 지 에 큰 거 시 영 나 나 라 호 니 션
 비 같 아 되 션 한 지 라 션 신 님 이 여 말 삼 이 올 은 거 시 호 나 님 은
 오 직 한 분 이 요 그 외 여 기 몸 니 업 사 니 이 다 마 암 을 다 호 며 뜻
 을 다 호 며 영 을 다 하 거 사 랑 호 고 도 근 체 사 랑 호 기 를 제 몸 갖

말씀하시니 열이 부자 되니 지미가 노이되가는 한파부로서 돈두
꿈을 더 지니온 일니카량이라이여 데자를 볼디갈아샤더니
실노더희게 일오니이까논한까부고에더지논바가 못사
말디지논것보락더관오문듯사 람은그날은바게척더지디
오직더노부족한덕그잇노바를다더지니꽃그지닌거구
라니오라

말씀하시니 열이 부자 되니 지미가 노이되가는 한파부로서 돈두

성원에나갈척하한데자일오디선성분청전던이들이엇더
하더이집이엇더한가소녀에수갈아샤더네이칸집을보
나야장차갈나들흔곳에누호외물이지지안오비업사리
라하다그강남산에안지성현을더할세며피들파야관파요
와니파안드라사사로이몰으디청진던오리게어너세여이

거시이사면또이거시다응할씨여무삼징초이사들일으소
 셔하시니예수살아샤되삼가사람으게리혹한방되지참나창
 차열어히니일흙으로써와셔갈아되닉가기르다하여특니
 세하미만으리카또너희싸좁싸싸좁은소문을듯고경동
 치말나이거시반다시이사되다못샤로마즈막은안이카빅
 성이빅성을치며나라이또한나라올치고열어곳에더진하
 며괴환하나이거슨달년의시초라고두스사르삼가하라사
 삼이너희를공회에붓치며회당에회질하고또너를위하여
 너희를왕파방박의압페너를써간을삼이리니복음을맛
 당히만저안국제전하라니히를볼며잡아가셔여엇지써말
 할고간저됨데치말고그씨고너희를조노라말하라이는
 너희자고너말하미안이요이성령의동성이동침을유함을

배후리라니 회년일흥을위하야이뵈는물뜻사근오게노되
 오직니종것알는자누구와을이드리라니회거흔비더유를
 건이맛당히셔지못할상가선거술노업오하는자는맛당히
 명백후리라셔역유디에잇는차산으로도망후리니집누에
 잇는사집에너리지닐버집게들이가들편을취치말고빛에
 잇는사들아와그웃습취치라나아셔야이회한이광것대기
 는자취화카니희맛당히벌거겨을한이물연후라이술셔이
 환한하나년의만들을지우침음으로부터이제셔셔이맛다
 미업고후에오또한질사리우관약츄가그리약을간치안아
 스면구완할사업셔되오직그티하빛사공위후셔그리약을
 감후엇나나라셔의단약니희비월오되보라기리스토로이

피 잇다 혹 터 피 잇다 하느자 이사면 밧지 말라 거 죽기 리 스토
 와 버 죽 선 지 가 무어 징 조 와 리 거 물 이 다 여 기 션 스 를
 호 리 개 리 라 너 화 스 가 하 버 락 락 보 되 일 보 노 랑
 시 너 이 모 단 환 칸 주 예 불 이 금 는 버 락 락 밧 마 지 하 고 락
 이 하 늘 도 부 터 션 여 지 려 하 날 이 모 단 등 인 아 전 등 할 스 니
 씨 여 사 례 이 인 자 가 관 능 간 의 관 영 화 두 씨 구 락 을 나 오 불
 보 리 씨 여 그 사 자 불 보 되 고 션 자 락 사 방 에 모 을 네 디
 극 으 로 수 차 턴 극 에 불 으 리 라 하 무 화 락 밤 모 을 밧 아
 비 사 를 취 하 사 바 야 프 르 고 가 지 가 곱 고 밧 피 켜 즉 녀 를 갖 가
 온 술 아 나 니 이 갖 치 너 희 이 일 이 사 물 보 고 씨 갖 가 와 쿨 에 밧
 촌 출 알 나 니 실 노 크 희 배 는 으 노 니 이 터 가 지 니 지 켜 하 여 이
 일 이 무 일 우리 라 턴 디 가 께 하 요 모 오 직 인 말 인 께 치 안 으 리

과다 못그날그일을아닌가엎고하날에잇노사조파아달도
 또한아직못하리오직아타나만아나니너희삼가하소서
 이그짐을써나먼니가닌이천세를종으리주의각각일고써
 맞치고문직기름명하여씨라함갓치하라고너희씨여라
 후문잡주인이어니씨여닐을출아지못하미라혹초혼이며
 혹지반이며혹말을턱이며혹아적에쳐두번딘디누득닐으
 리너희잠들만너리라너희말하닌바를쓰한씨못사름
 이게말하여씨게하라다라

말코복음제십사장

이들을지나니너는절소누룩금하니절이라제사장과선비
 제홀노써예수를잡아쥐기기를도모고되이직절기에올치

가라하든민성이분교할가정적하미다라예수빛아나에빅
 남풍후는시몬의집에서돛계안젖는니한부인이함예지극
 귀귀한피식날두기족담아가치고외셔함을세치고그멀리
 에부오니두이사람이노하고과아되었지이길을을허비하
 나냐이거술과라운삼십에량할사시면죽기씨가노을건지
 갖다하고허를허거날예수갈아샤되음남하락엇지피롭고
 하노나타니게조은일을행하노기시과가노하사참온늘너
 희로너부러함기하니션이뒤접고그적후민셔마당가하되
 오직나그늘너희르함기못하갓다터성령것행하큰일이니
 몸예권을발나써창사하물예비하이라니실노느희고일이
 노니오우세상어너곳이던지이복음을전하고또한아부인
 행한바를말하여써싱과을삼노라하다라엘두테자의하나

...

계일이노니 너희 한나히 들노라 부러 함과 면 너 자 장 차 나 를
 팔 니 라 호니 테 자 근 심 호며 한나 식물 이 되 니 잇 가 호니 갈
 아 샤 되 열 두 테 자 에 한 나 나 파 갓 치 바 리 에 호 슈 호 는 자 가 기
 로 다 인 자 가 는 거 손 클 에 기록 한 바 갓 탁 되 오 직 인 자 를 판 자
 는 직 화 이 사 리 니 이 사 람 은 이 는 거 시 다 형 이 라 호 다 라 먹
 을 쟈 여 예 수 석 을 가 저 축 슈 호 고 세 여 테 자 를 주 워 갈 아 샤 되
 바 드 라 이 는 너 의 신 테 라 호 고 또 잔 을 가 저 축 슈 호 고 주 워 못
 사 람 을 다 마 시 라 호 며 일 오 샤 되 이 는 너 의 피 요 곳 신 약 이 니
 열 어 사 람 을 위 호 여 들 닌 거 시 라 실 노 너 희 게 일 으 노 니 너
 다 시 는 포 도 남 우 의 나 는 바 를 마 시 지 못 호 고 그 날 에 시 거 술
 하 나 남 의 나 라 게 가 시 갓 다 하 다 라 시 를 음 고 감 남 산 에 나 가
 테 자 계 일 으 시 되 너 희 못 사 람 이 나 를 쟈 리 세 우 문 클 에 하 여

시된니가 목인을 티면 양이 해여치리다 하미라다 시년 후
 왜 너희 암서가 니가 에가 갖다 하니 피들이 갈아되 비록 다 새
 리세올시라도 나는 해리세우지안것나이다 예수갈아샤되
 너실노 비게일오노니 오날이 바옥물올기 두번전에 네가 세
 번나를 물으리라 피들이 힘써말하되니 주로더 부러합기 망
 할지라도 또한 물우지안것나이다 하고 각인이 또한이 갖치
 말하다라 한곳에 브으니 익흠은 깃세 마베라테 차게일으샤
 되어 피안저니 빌기를 기다리다 하고 이여피들파야 곱파요
 아니를 다리고 사기파합기 하여 비르소 황송하고 른여
 갈아샤되니 마암이 심기근심하니 거의숙갓다 마희는게서
 기물어세여라 하고 죠금나아가쌍에 업디여 빌피예혹가하
 면이셔물면하리라 하고 갈아샤되암바아바니는 능치 못헌

바업사니이 잔을 너게 써나게 하소서 다 못나의 즐거하느바
 를 좃지안코아바니의하느바를 좃갓나이다 하고이여와셔
 데자자볼보고피들개일으샤되시몬아베자나냐능히잠시
 를씨엿지못하나냐맛당히셔여벌어써미혹에들들면하라
 마암은실노원하나몸은현약하다하고다시가비느더말을
 갓치하고돌아와그잠을보니그눈이곤한지라테자엇지더
 답할줄을아지못하거날⁴¹터세번치들아와갈아샤되이제는
 자고쉬기라다되엿다닐으라스니인자가죄인의손에붓치
 을도라⁴¹리벌어나라가자나를붓칠자갓가왔다말할셔여문
 득⁴¹열드⁴¹터자의한나유다허다한사⁴¹라파함의칼파몽동이르
 써제사작파션비파창노으게로부터오다⁴¹라붓치는자일즉
 군호들주워갈아되너입맛추는자가곳터니잡아긋건이슬

1 나하나라들^{五十五}으려나아와갈가되션성님하고입맞추니^{五十六}뜻사
 람이하슈하여잡는지^{五十七}라^{五十八}것^{五十九}뒤^{六十}섯던자한나이칼^{六十一}을^{六十二}세^{六十三}여^{六十四}제^{六十五}사
 장의^{六十六}종^{六十七}을^{六十八}쳐^{六十九}그^{七十}귀^{七十一}를^{七十二}씩^{七十三}그^{七十四}니^{七十五}예^{七十六}수^{七十七}일^{七十八}오^{七十九}샤^{八十}되^{八十一}너^{八十二}희^{八十三}강^{八十四}도^{八十五}잡^{八十六}움^{八十七}갓
 치^{八十八}칼^{八十九}짜^{九十}몽^{九十一}동^{九十二}이^{九十三}도^{九十四}써^{九十五}와^{九十六}나^{九十七}를^{九十八}잡^{九十九}나^{一百}냐^{一百零一}발^{一百零二}마^{一百零三}당^{一百零四}디^{一百零五}희^{一百零六}파^{一百零七}함^{一百零八}기^{一百零九}성
 텐^{一百一十}게^{一百一十一}셔^{一百一十二}가^{一百一十三}라^{一百一十四}쳤^{一百一十五}너^{一百一十六}디^{一百一十七}너^{一百一十八}희^{一百一十九}나^{一百二十}를^{一百二十一}잡^{一百二十二}자^{一百二十三}안^{一百二十四}아^{一百二十五}스^{一百二十六}니^{一百二十七}오^{一百二十八}직^{一百二十九}성^{一百三十}경^{一百三十一}을^{一百三十二}응
 험^{一百三十三}케^{一百三十四}한^{一百三十五}다^{一百三十六}하^{一百三十七}다^{一百三十八}라^{一百三十九}테^{一百四十}자^{一百四十一}다^{一百四十二}셔^{一百四十三}나^{一百四十四}도^{一百四十五}망^{一百四十六}하^{一百四十七}는^{一百四十八}뒤^{一百四十九}한^{一百五十}쇼^{一百五十一}년^{一百五十二}이^{一百五十三}비^{一百五十四}로^{一百五十五}써
 몸^{一百五十六}에^{一百五十七}들^{一百五十八}으^{一百五十九}고^{一百六十}예^{一百六十一}수^{一百六十二}를^{一百六十三}좃^{一百六十四}거^{一百六十五}날^{一百六十六}군^{一百六十七}노^{一百六十八}잡^{一百六十九}으^{一百七十}라^{一百七十一}하^{一百七十二}미^{一百七十三}비^{一百七十四}를^{一百七十五}버^{一百七十六}리^{一百七十七}고^{一百七十八}벗
 고^{一百七十九}도^{一百八十}망^{一百八十一}하^{一百八十二}다^{一百八十三}라^{一百八十四}이^{一百八十五}여^{一百八十六}예^{一百八十七}수^{一百八十八}를^{一百八十九}잡^{一百九十}아^{一百九十一}제^{一百九十二}사^{一百九十三}장^{一百九十四}압^{一百九十五}페^{一百九十六}닐^{一百九十七}으니^{一百九十八}제^{一百九十九}사^{二百}장
 파^{二百零一}장^{二百零二}노^{二百零三}파^{二百零四}션^{二百零五}비^{二百零六}다^{二百零七}모^{二百零八}였^{二百零九}는^{二百一十}지^{二百一十一}라^{二百一十二}피^{二百一十三}들^{二百一十四}이^{二百一十五}멀^{二百一十六}니^{二百一十七}좃^{二百一十八}차^{二百一十九}제^{二百二十}사^{二百二十一}장^{二百二十二}의^{二百二十三}원
 에^{二百二十四}들^{二百二十五}어^{二百二十六}가^{二百二十七}군^{二百二十八}노^{二百二十九}르^{二百三十}함^{二百三十一}과^{二百三十二}안^{二百三十三}저^{二百三十四}불^{二百三十五}을^{二百三十六}향^{二百三十七}하^{二百三十八}여^{二百三十九}쏘^{二百四十}이^{二百四十一}다^{二百四十二}라^{二百四十三}제^{二百四十四}사^{二百四十五}장^{二百四十六}과
 오^{二百四十七}은^{二百四十八}공^{二百四十九}회^{二百五十}가^{二百五十一}간^{二百五十二}중^{二百五十三}을^{二百五十四}차^{二百五十五}자^{二百五十六}예^{二百五十七}수^{二百五十八}를^{二百五十九}쳐^{二百六十}죽^{二百六十一}이^{二百六十二}고^{二百六十三}겨^{二百六十四}하^{二百六十五}되^{二百六十六}엇^{二百六十七}지^{二百六十八}못^{二百六十九}하
 2 50만^{五十七}이^{五十八}거^{五十九}쫓^{六十}간^{六十一}중^{六十二}으로^{六十三}써^{六十四}쳐^{六十五}간^{六十六}중^{六十七}하^{六十八}는^{六十九}바^{七十}맛^{七十一}지^{七十二}안^{七十三}으^{七十四}미^{七十五}라^{七十六}쇼^{七十七}두

이 사랑이 불기거듯 감동하여 빛아 되나니 주지 감동할 수 너이
 손으로 지는바 성령을 하리니 주지 감동할 수 너이
 거슬러 오라 다 하여 스니 주지 감동할 수 너이
 라 계사장이 가운뎃서 에 수대 물이 갈아 되니 뒤 감할 작업
 나 주이 사랑이 간송하리니 감동할 수 너이
 잠잠하고 되달지 안으니 계사장이 다 시 감동할 수 너이
 송하는하나님의 아람키리스토에 수감아 사되니 가기로
 다 비희장차 인자가 권능의고 편애 감고 느하 날에 감움을 타
 고 오물 - 리라 하니 제사장이 고 옷을 쓰즈니 갈아 되엇지 말
 니 간중을 쓰라 요 비희고 감남하 불로이스니 너희 뜻키 었더
 하냐 하미 못사 한이 평안하리 죽을테 범하엿다 하니 두이사
 람이 춤밧고 그 낮출 날이 오고 주 너구로써 쳐 갈아 되 비밀이

말하라 하고 모단관 노손바닥이 모치며 귀라 귀라 귀라 귀라
들 에 잇는 디 제 사 장의 네 종 한 나 이 와 석 포 록 이 불 쏘 이 쫓 보
고 눈 질 하 여 갈 아 버 는 도 주 님 잇 예수 파 합 귀 하 다 하니 덕
몰 이 는 체 하 여 갈 아 되 나 는 데 말 을 아 지 고 히 고 영 빛 지 쫓 하
갓 다 하 고 이 여 문 환 에 가 나 을 기 우 는 시 라 마 종 기 보 고
또 경 티 선 자 게 갈 아 되 덕 노 그 무 리 에 한 나 이 크 하니 피 들 이
다 시 몰 이 는 체 하 다 라 이 잇 고 거 티 선 자 피 들 게 일 으 르 네 실
노 그 물 리 에 한 나 인 거 시 너 는 가 니 닐 사 람 이 라 하니 피 들 이
악 답 하 고 영 세 하 되 는 말 하 는 사 람 은 닐 아 지 모 한 아 하 는 디
말 기 다 시 우 는 지 라 되 롭 이 고 말 들 성 과 하 디 에 수 었 지 일 온
바 목 을 기 두 번 전 거 네 세 번 가 는 을 노 리 고 한 지 다 죽 시 을 악
라

말코복음제십오장

아직에게사작과장노파션비과오은공회가함피도모하교
예수를결박하여슬고빌나도으게붓치니빌나도블으되네
가유디인의왕이냐더답하여갈아샤되다인이랄하였나이
다하니제사장³이열어긔트³써송사하가날빌나도다시물
어갈아되비아긔디답도안나냐⁴긔⁴를치는거슬보라열어
긔치³다하되다긔⁴수맛츄⁴더답기안이하니빌나도긔
긔히네기나라⁴긔가이절과마당⁴긔사⁴구하는바한죄인을
노와맛치는디⁴셔⁴한사랑의일흥본바람바니는짓는자로
드부러결넌하⁴는시를셔⁴사⁴을숙인자⁴라⁴긔⁴사랑이을
나가구하여비디⁴로⁴항하⁴소서하니빌나도더답하⁴갈아되
나다⁴력유⁴디인의왕을너희⁴게⁴눅코⁴져하⁴냐⁴하⁴문제⁴사⁴장이

희여 부치려 하물 알미라다 부제사상이 못사 랑을 취겨 할하
리바랍바를 노으라 하니 밭나도다 시 못사 랑을 일노 갈아 되
클 언즉 비희 일노 바유 되 의왕은 다 리엿지 썩쳐치코
저하나 나 못사 랑이다 시 불노 갈아 되 십지 틀에 무질 하 소셔
하니 밭나도 갈아 되 터 무삼 악을 행 하엿나 나 하 되 못사 랑이
더 옥 불너 갈아 되 십지 틀에 못질 하 소셔 하니 밭나도 못사 랑
의마 암되 로 행 하 고 저 하 여 이어 바 랑 바 를 노 와 주 고 예 수 를
부쳐 첫 직 질 하 여 십 지 틀 에 누 질 하 라 하 다 라 군 사 실 고 원 에
들 어 가 니 꽃 공 당 이 라 이 여 오 은 영 을 모 으 고 불 군 포 로 썩 님
피 고 가 시 면 뉴 관 을 엿 거 시 우 고 이 여 문 안 하 여 갈 아 되 유 되
인 의 왕 은 평 안 하 소 셔 하 며 길 되 르 썩 그 멀 이 를 치 며 음 밭 고
또 썩 어 절 하 여 희 롱 을 다 하 고 물 근 포 롱 벳 기 고 벳 웃 스 로 썩

남편과 함께 나가서 십지틀에 못질하려 하더니 쿠리니인시몬
 은 곳아리산더파로부의 아밤이라 바트로 말미암아 오거날
 강잉하여 그 십지틀을 지우고 예수를 다리고 한곳에 붙으니
 일홈은 골고타라 시긴 즉 두골잇는 곳이라 몰양으로 술에 화
 한 거슬 주워 마시라 하니 밋지안탁라 십지틀에 못질하고 그
 옷슬 제비하여 써누가 엇나 보는 뒤 새진시말이라 십지틀에
 못질하고 죄뚝늘 그 우어 써갈아 되유히 인의왕이라 하고 또
 함기 두강도 십지틀에 못질하는 뒤 한나온 자 권에 하고 한
 나온 오 견에 하니 지닌는 자 욕하여 밀이를 흔들어 갈아 노성
 락을 현어 사홀에서 울자는 스사로 구완하여 십지틀 노 죽차
 니리라 하고 제사장 파션비또한 이 갓치 기롱하여 서로 갈아
 되며 말은 사람은 구완하고 능히 스사로 구완치 못한다 이 살

잇왕기리스토논이제십직들노부터너려우리로보고밧게
 하라하고갓치못질한쟈또한욕하다라오시에밧쳐오은쌍
 이다어두워미시에닐으다니미시말을당하여예수크게소
 리하여갈아샤되이되이라마사박다니라하니싱긴즉기
 의하나님기의하나님엇지나를셔나나니잇가하미라겐뒤
 섯던쟈듯고혹갈아되됨이니아름불운다하니하시람이달
 아가초으로써히용에적셔갈셔여두워주워마시라히고갈
 아되용납하라이니아와셔취하여너리나보쟈하다라예수
 큰소리로불으고기운이산어지니성된포창어우으로부터
 알에새지씩여져들이피거날과총이압페셔서고이갓치기
 운산이⁷지물보고갈아⁸되이사람이실노하⁹나님의아들이라
 하다라또부인들이멀니서보난디그중에막다레의마리암

파쇼년야곰파요시의어맘마리암파살노미가이스니^{四十一}곳에
 수가니니게이슬섞여죽차엿투던쟈요쏘열어부인이이스
 니^{四十二}곳함괴예루살임에가던쟈다라이날은예비하느날이니
 곳사밧일전날이라^{四十三}고로아리마더인요섭은존귀한지상이
 요쏘하나님의나라을사모하느^{四十四}쟈라와셔당당이빌나도으
 게들어가예수의시신을구하니^{四十五}빌나도그이무죽으몰괴이
 히네겨그과총을볼너물은더죽은지올인지라^{四十六}파총으로말
 리암아알고시신으로써요섭을주니^{四十七}요섭이가는빅를사고
 시신을취하^{四十八}여^{四十九}니려^{五十}싸^{五十一}셔^{五十二}반^{五十三}석^{五十四}거^{五十五}판^{五十六}바^{五十七}무^{五十八}덤^{五十九}에^{六十}장^{六十一}사^{六十二}하^{六十三}고^{六十四}들^{六十五}을
 묘^{六十六}운^{六十七}에^{六十八}골^{六十九}니^{七十}다^{七十一}라^{七十二}막^{七十三}다^{七十四}린^{七十五}의^{七十六}마^{七十七}리^{七十八}암^{七十九}과^{八十}요^{八十一}시^{八十二}의^{八十三}어^{八十四}맘^{八十五}마^{八十六}리^{八十七}암^{八十八}이^{八十九}
 그^{九十}든^{九十一}바^{九十二}곳^{九十三}을^{九十四}보^{九十五}다^{九十六}라^{九十七}

말고복음데십육장

사밧일이 지니니 막다린의 마리아와 야곱의 어맘 마리아와
살노미가 향노를 사가지고와셔 그 시신에 밧으고져 호여사
밧일 첫날 일즉 이히 쉴턱에 무덤에 가서로 말호되 누가 우리
를 위호여들을 굴터묘운에 셔낫나 호호니 그들이 심히 크미
라 밧이보니 그들이 오겼는지라 무덤에 들어가 한 쇼년 이 올운
편에 안젓는디 한 옷슬 남으물 보고 황송호니 갈아샤되 황송
치말나 너희나 살잇에 수십 직틀에 옷질한 자를 찾는다 너는
어여괴 잇지 안으니 그 두엇던 곳을 보고 다 못가 그테자 파피
들으게 터 너희 압셔가니 니에가 스물고호라 거괴셔보리니
르너희게는 은바갓타리라 호미 부인이 무덤으로 나와 말아
나 너희 셜며 호나사름으게 말치 못호문 그루셔 위호를 인호
미 다라사 밧일 첫날 시벽에 예수다 시볼어 만져 막다린의 마

리암노게¹ 타나니² 광택의³ 말의⁴ 암아⁵ 들⁶ 군귀⁷ 신을⁸ 좃⁹ 춘¹⁰ 자¹¹ 라
 락¹² 하¹³ 신¹⁴ 뒤¹⁵ 광¹⁶ 락¹⁷ 이¹⁸ 면¹⁹ 노²⁰ 이²¹ 게²² 고²³ 고²⁴ 정²⁵ 히²⁶ 술²⁷ 피²⁸ 구²⁹ 신³⁰ 뒤³¹ 못³² 사³³ 람³⁴
 이³⁵ 고³⁶ 살³⁷ 들³⁸ 못³⁹ 피⁴⁰ 구⁴¹ 신⁴² 뒤⁴³ 못⁴⁴ 사⁴⁵ 람⁴⁶ 이⁴⁷ 허⁴⁸ 다⁴⁹ 라⁵⁰ 그⁵¹ 후⁵² 에⁵³ 테⁵⁴ 자⁵⁵ 중⁵⁶
 두⁵⁷ 사⁵⁸ 람⁵⁹ 이⁶⁰ 허⁶¹ 다⁶² 라⁶³ 그⁶⁴ 후⁶⁵ 에⁶⁶ 테⁶⁷ 자⁶⁸ 중⁶⁹
 이⁷⁰ 가⁷¹ 그⁷² 날⁷³ 의⁷⁴ 소⁷⁵ 람⁷⁶ 으⁷⁷ 게⁷⁸ 고⁷⁹ 하⁸⁰ 되⁸¹ 또⁸² 한⁸³ 밋⁸⁴ 지⁸⁵ 안⁸⁶ 타⁸⁷ 라⁸⁸ 후⁸⁹ 에⁹⁰ 열⁹¹ 화⁹² 데⁹³
 자⁹⁴ 뜻⁹⁵ 게⁹⁶ 안⁹⁷ 족⁹⁸ 는⁹⁹ 디¹⁰⁰ 나¹⁰¹ 타¹⁰² 나¹⁰³ 그¹⁰⁴ 밋¹⁰⁵ 지¹⁰⁶ 안¹⁰⁷ 음¹⁰⁸ 빠¹⁰⁹ 마¹¹⁰ 암¹¹¹ 완¹¹² 필¹¹³ 하¹¹⁴ 들¹¹⁵ 칩¹¹⁶ 망¹¹⁷
 하¹¹⁸ 문¹¹⁹ 그¹²⁰ 다¹²¹ 시¹²² 난¹²³ 후¹²⁴ 에¹²⁵ 보¹²⁶ 자¹²⁷ 를¹²⁸ 뵈¹²⁹ 지¹³⁰ 안¹³¹ 이¹³² 물¹³³ 인¹³⁴ 하¹³⁵ 미¹³⁶ 라¹³⁷ 또¹³⁸ 살¹³⁹ 아¹⁴⁰ 샤¹⁴¹
 되¹⁴² 노¹⁴³ 희¹⁴⁴ 오¹⁴⁵ 은¹⁴⁶ 면¹⁴⁷ 하¹⁴⁸ 게¹⁴⁹ 가¹⁵⁰ 목¹⁵¹ 음¹⁵² 을¹⁵³ 안¹⁵⁴ 민¹⁵⁵ 으¹⁵⁶ 게¹⁵⁷ 전¹⁵⁸ 하¹⁵⁹ 라¹⁶⁰ 밋¹⁶¹ 고¹⁶² 밥¹⁶³ 틈¹⁶⁴ 데¹⁶⁵
 록¹⁶⁶ 밋¹⁶⁷ 는¹⁶⁸ 자¹⁶⁹ 는¹⁷⁰ 구¹⁷¹ 완¹⁷² 하¹⁷³ 고¹⁷⁴ 밋¹⁷⁵ 지¹⁷⁶ 안¹⁷⁷ 는¹⁷⁸ 사¹⁷⁹ 는¹⁸⁰ 죄¹⁸¹ 를¹⁸² 명¹⁸³ 하¹⁸⁴ 리¹⁸⁵ 라¹⁸⁶ 밋¹⁸⁷ 는¹⁸⁸ 자¹⁸⁹
 은¹⁹⁰ 프¹⁹¹ 란¹⁹² 영¹⁹³ 조¹⁹⁴ 하¹⁹⁵ 가¹⁹⁶ 쫓¹⁹⁷ 고¹⁹⁸ 되¹⁹⁹ 고²⁰⁰ 주²⁰¹ 락²⁰² 의²⁰³ 은²⁰⁴ 흘²⁰⁵ 리²⁰⁶ 큰²⁰⁷ 새²⁰⁸ 귀²⁰⁹ 락²¹⁰ 흰²¹¹ 을²¹² 좃²¹³ 고²¹⁴ 프²¹⁵ 들²¹⁶
 은²¹⁷ 말²¹⁸ 들²¹⁹ 말²²⁰ 이²²¹ 고²²² 리²²³ 암²²⁴ 을²²⁵ 잡²²⁶ 우²²⁷ 며²²⁸ 후²²⁹ 들²³⁰ 하²³¹ 물²³² 마²³³ 실²³⁴ 지²³⁵ 라²³⁶ 도²³⁷ 또²³⁸ 한²³⁹ 히²⁴⁰
 가²⁴¹ 업²⁴² 고²⁴³ 손²⁴⁴ 을²⁴⁵ 병²⁴⁶ 하²⁴⁷ 는²⁴⁸ 자²⁴⁹ 이²⁵⁰ 게²⁵¹ 안²⁵² 할²⁵³ 한²⁵⁴ 즉²⁵⁵ 나²⁵⁶ 으²⁵⁷ 리²⁵⁸ 라²⁵⁹ 하²⁶⁰ 다²⁶¹ 라²⁶² 주²⁶³ 터²⁶⁴

이런데 부러움을 갖추고 할 일에 접어들어 올나가 하나 몸
의 불편에 안고 데자⁴나가가 각곳에 들을질⁵기⁶주모와 쫓
기바그모단징쇼⁷씩도틀간중하마라

강명편

할렐렐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렐루 예수전에 유대국 포에 드는 법인데 시조압라함의
셔은브라

사밧일은 미블게예할우식쉬이느날이라

님년절은 이살일뵈성이인 굽국에나오던셔를싱각하느날
이라

장막절누유대국취셔이라

유대난이살일의남에국명인데 로마에부투니라

예루사림은 유대국셔올이라

성탄은 하나님게절이며 제한곳인데 예루사림에잇나

나라 사마랴는 유디복견인데 로마의 한도명이라

가니 님은 사마랴복견인데 소한 로마도명이라

로마 난한 꼬을인데 벧적에 모든 세국의 으뜸이라

예수는 구완하난 뜻이라 키리스토는 기름으로 발으난 뜻이

데라 발이 식난 모쇼의 꼬에 부는데 혼파 죽었다

시닐물 밋난 거시오 샷두기도 소한 모쇼의 꼬에 부는데

턴사파녕 혼파 죽었다 다시닐물 밋지안 거시라

제사는 하나님에게 제물이 난 직분이라

피들은 돌이라

람비는 스승이라

사탄은 원수라

별시불은 외방 사람의 귀신은 팔이의 슈뜻이라

